

Style

조선일보

OCTOBER 2019
vol.196



ROLEX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Zip Antique Ludo necklace
transformable into a bracelet,
rubies and diamonds.





12



31



22



Rolex는 새로운 오이스터 퍼페추얼 데이트라스 31울 두 버전으로 선보인다. 표지 속 제품은 오이스터 스틸과 18K 옐로 골드를 조합한 옐로 플래츠 버전. 스텔이 파니시 올리브 그린 다이얼에 골드 시곗바늘과 11개의 다이아몬드를 새긴 로마숫자 V자로 포인트를 했다. 스텔 모델의 옐로 세린 플루티드 베젤을 장착한 케이스는 지름 31mm로, 칼리버 2236을 장착했으며 최상급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았다. 문의 02-2143-1700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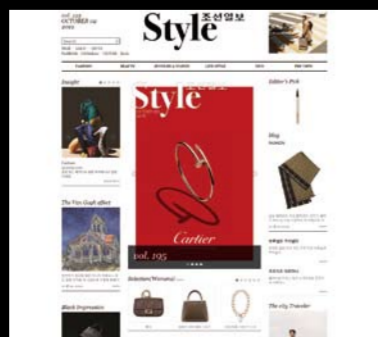
- 08 **SELECTION** for him 정제된 실루엣으로 시크하고 담백하게 즐기는 예술러틱 무드.
- 10 **SELECTION** for her 여성스럽고 자유분방한 멋이 공존하는 보헤미안 패션.
- 12 **ONE OF A KIND**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잡는다)가 아니라도 프라다는 이미지가 꽤 강력한 브랜드다. 특히 정형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도전 정신이 연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문화 예술 생태계에서의 출중한 행보가 끼친 영향도 상당하지 않나 싶다. 누구와도 닮지 않은 독창성, 흥미진진한 실현성이 돋보이긴만, 동시에 세련됨을 장췌한 프라다 파운데이션(Fondazione Prada)의 면면을 보고 누군가 '미술관은 프라다를 잡는다'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 그 남다른 유전자와 다면적인 매력을 우리는 정확히 10년 전인 2009년 서울 경희공에서 펼쳐졌던 '프라다 트랜스포머(Prada Transformer)'를 통해서도 목격한 바 있다. 4개의 면이 회전하면서 다른 공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4면체 철제 건축물을 무대로 패션, 영화, 아트 등의 콘텐츠를 버무린 독특한 예술 프로젝트. 이 충격적인 구조물을 살계한 램 콜하스는 "문화가 하지 않는 것을 건축이 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프라다는 그동안의 문화 예술을 어떻게 만들어왔을까.
- 14 **HIGHLY PRECIOUS** 잠시만 한국에 머문다. 지금 이때 아니면 만나 보기 힘든, 그래서 더 가치 있는 하이 주얼리 피스.
- 16 **RULE THE JOURNEY** 출장과 여행을 자주 가는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방식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정교한 타임 피스 7.
- 18 **HAPPY TOGETHER** 어린 시절 입을 즐겁게 해줬던 달콤한 캔디처럼, 눈을 즐겁게 해주는 캔디 컬러 주얼리.
- 20 **AIRY STEPS** 부담 없이 신을 수 있어 더욱 좋은, 편안하고 감각적인 스포티브 스니커즈 셀렉션.
- 21 **LEGENDARY CLASSIC** 그 뿌리는 짙게는 60년 전, 길게는 1백여 년 전으로 올라간다. 동시대의 가장 세련된 감성을 담아 조금씩 변형되어 온,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클래식 워치들.
- 22 **SHOW OF STYLE** 더욱 풍성한 볼륨, 화려한 컬러, 프린트의 과감한 믹스 매치. 맨디함과 자유분방함을 넘나드는 남성들의 뉴욕.
- 30 **SCENT OF A MAN** 깊어가는 가을 향이 느껴지는 남자 향수 6.
- 31 **ABSOLUTE MASTERPIECE** 파격적인 시도와 거침없는 행보로 고급 시계 시장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리차드 밀. 동양 신화에서 배울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자 인내와 성공의 상징인 용을 다이얼에 구현한 신비로운 매력의 새로운 아트피스 컬렉션을 공개했다.
- 32 **COVER ME UP** 실험적인 접근은 뒤로하고 아우터의 본질적 요소에 집중했다. 실루엣, 소재, 디테일의 섬세한 조합을 통해 제안하는 실용적인 남녀 가을 아우터 트렌드 8.
- 34 **EDITOR'S PICK** 수분을 채우고 영양을 더하는 스키케어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 건강한 피부 표현을 위한 13가지 뷰티 솔루션.

Style 조선일보

Issue.196 October 2019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정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이혜미 hmlee0909@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경희 ih5567@chosun.com 분해 | 재판 | 라온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나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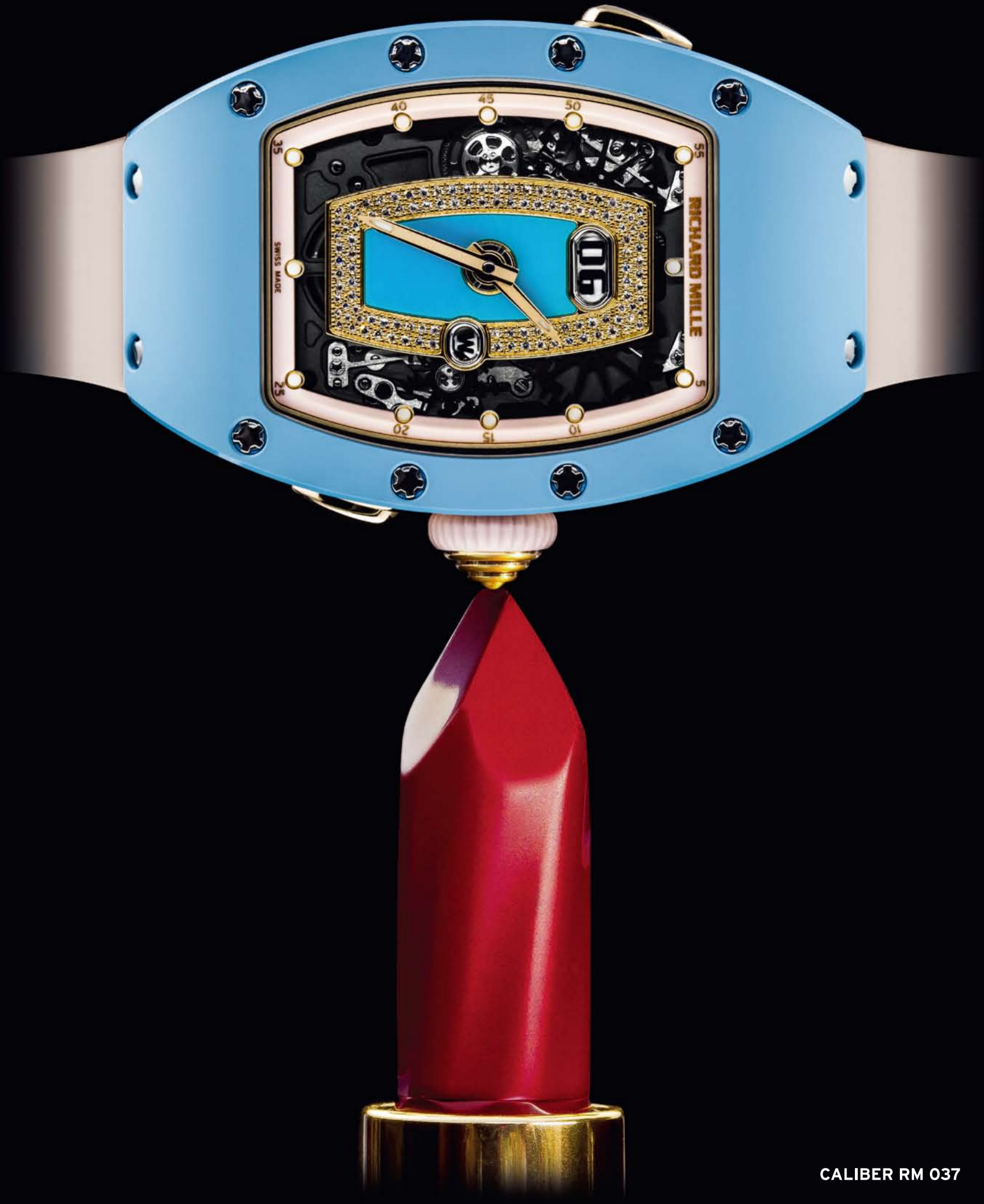
매일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의로 발행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서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RICHARD MILLE



CALIBER RM 037

RICHARD MILLE BOUTIQUE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429 • 02) 512 1311
 www.richardmille.com

© Didier Gourdon



모토그라미 최승혁

Jewel DELICATE GLOW

깊어가는 가을밤 더욱 고혹적으로 빛나는 진주 주얼리 5.

(왼쪽 윗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로즈 모티브와 이코아 진주를 나란히 배치한 파이제 로즈 링 가격 미정 **파이제**, 지름 7mm의 최상급 이코아 진주로 광채를 더한 사쿠라 골드 쿠겔 브라이덜링 2백80만원대 **타사키**, 불규칙하고 자연스러운 모양의 비로크 담수 진주를 엮은 베 데 앙주 옐로 골드 브라이덜링, 베 데 앙주 옐로 골드 다이아몬드 모두 가격 미정 **프레드**, 트리니티 모티브 중앙에 담수 진주를 매치해 우아함을 강조한 트리니티 필 링 6백50만원대 **카르디에**, 에디터 **이혜미**

Fashion UTILITY SOLUTION

탈탈하고 맛있는 매력으로 스트리트 패션 장르에 나선 콤팩트 부츠.

(위부터) 특유의 V 로고 메탈 장식을 전면 세진 소가죽 앵글부츠, 1백50만원 **빌렌타노 가리비니**, 탱크 솔과 카무플라주 패턴이 결합된 여전사를 연상시키는 스웨이드 부티, 가볍고 폭스한 러버 솔이 뛰어난 착용감을 제공한다, 1백48만원 **미우미우**, 날렵한 알코가 세련미 넘치는 웨스턴 스타일의 송아지 가죽 카우보이 부츠, 1백26만원 **성 로망 by 안토니 바르셀로**, 보드라운 시아원과 스웨이드 소재를 조합한 로코렛 플랫폼 데저트 부츠, 한가울 뉘앙스도 고려함을 뜻, 2백만원대 **루이 비통**, 매끈한 송아지 가죽으로 제작된 레이스업 부츠, 이트술에 작은 아플리케 장식을 적용해 사랑스러움을 더했다, 85만원대 **차처스**, 에디터 **이유미**



모토그라미 최승혁



모토그라미 최승혁

Beauty BEGIN AGAIN

밤 동안 피부는 잠들지 않고 내일을 위해 끊임없이 회복과 재생을 한다. 미인은 밤에 만들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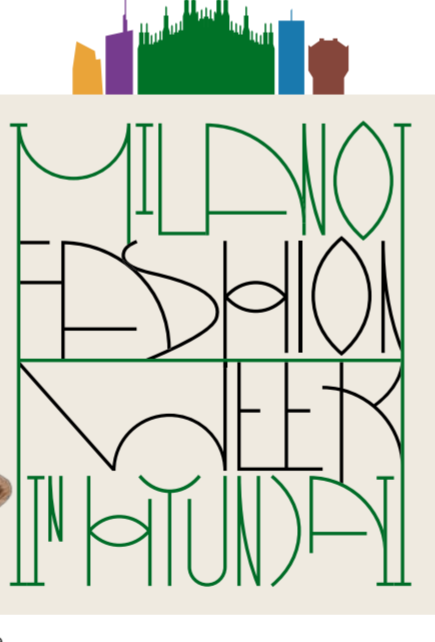
(왼쪽부터) **글레드보 보헤 나이트 오이스처라이저** 인텐시브 포타피핑 에센스 낫 동안 유해 환경 때문에 손상된 피부를 밤사이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노화의 징후를 가속화하는 요오드 미아유는 산뜻하고 가벼운 에센스 타입 오이스처라이저, 크림 타입으로도 출시한다(125ml 16만원대), **디올 퍼세스티지 트 그랑드 마스크** 피부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여러 성분을 가득 함유했다. 정교하리만치 고운 텍스처가 피부에 스며들어 부드럽게 감싸주는데, 내장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마사지하면 효과가 더 높아진다. 일주일당 한두 번 주기적인 사용을 권장(450ml 22만5천원), **에스티 로더 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인텐스 리페어 컨센트레이트** 스트레스로 지친다 예민해진 피부를 회복할 시에 빠르게 개선해준다. 짙은 출장 혹은 여행, 환절기, 그리고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손상된 피부 개선에 탁월하다. 가벼운 젤 타입(100ml 12만5천원), **젤랑 아베이 로얄 나이트 크림** 블랙비 리페어 테크놀로지라 비타민 E 유도체를 결합했다. 위상 허니, 모로코 허니, 그리고 켈링 안소를루시브 로열젤리의 특별한 리페어링 파워로 밤사이 탄력 있는 피부로 가꾸준다(50ml 22만1천원), **바이오테드 루즈원스 캔들** 프랑스 수공예 글라스와 코튼 심지를 이용해 만든 향초. 인력한 공간을 채우는 편안한 향으로, 1960년대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바이올렛 향이 느껴진다(240g 9만8천원), **사실 로 리프트 스킨-리캐리 솔리딩 마스크** 피부가 연약하고 얇은 목과 데콜레는 장치는 동안 누워 있는 자세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밤새 굳어있어 보습 작용을 해 아침에 일어나면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탄력도 살아난다. 일주일당 2~3번 얼굴, 목, 그리고 데콜레에 넓게 퍼바르면 좋다(75ml 15만9천원), 에디터 **장희윤**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Focus 서울에서 밀라노를 만나다

현대백화점이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Camera Nazionale della Moda Italiana)와 손잡고 국내 소비자들에게 이탈리아 디자이너 브랜드 및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는 대규모 기획전을 열었다. 바로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현대백화점 압구정 본점, 무역센터점, 판교점에서 차례로 진행된 밀라노 패션 위크 인 현대 행사.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는 보테가 베네타, 펜디, 구찌, 프라다 등 2백여 개의 패션 브랜드를 회원사로 둔, 이탈리아 패션 산업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로, 밀라노 패션 위크를 비롯한 대형 패션 행사를 주관한다. 이번 기획전은 그간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이탈리아 현지 디자이너 브랜드의 팝업 스토어를 오픈하는 한편, 기존 하이엔드 브랜드 고객을 위한 특별한 상품을 선보였고, 퍼스널 쇼퍼 서비스, 스타일링 클래스, 예코 백 중점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현대백화점과 이탈리아 국립패션협회는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향후 지속적인 관계를 이어가며 더욱 흥미롭고 풍성한 콘텐츠와 프로젝트를 펼쳐 보일 계획이다. 문의 02-553-6422 에디터 **이혜미**



Cote



Exhibition 석촌호수 위에 등장한 우주 괴물들, '루나 프로젝트'

명하는 크지만 은근한 귀여움을 내뿜는 우주 몬스터라 불리는 7개의 초대형 캐릭터가 서울 잠실 석촌호수 가운데 웅크리고 모여 앉아 있는 색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 화제다. 키가 무려 16m에 이르는 파란색 지구몬, 보랏빛 타이가인산적인 루나몬, 지구 모양을 지니는 지렁이 세이버 등의 몬스터를 형상화한 초대형 별문 작품이 빛어내는 흔치 않은 풍경이다. 국내 창작 스튜디오 스타카몬스터랩(SML)이 롯데문화재단, 송파구청, 롯데월드타워와 손잡고 진행한 '루나 프로젝트(The Luna Project)'의 기대하지만 깜짝한 결과물로, 특히 2014년 큰 인기를 끌었던 노란색 '라바닥'을 시작으로 '슈퍼몬', '캄배'인 등으로 이어져 내려온 석촌호수의 공공 미술 역사에서 처음으로 한국 작가 그룹이 맡은 사례여서 더 의미가 있다. 스타카몬스터랩은 반세기 전 이루어진 달 착륙을 기념해 글로벌 인기 캐릭터 스누피의 꿈과 사랑을 담은 예사리와 지구환경에 대한 예사리를 우주 몬스터들의 장미 가는 모습을 통해 전달하고자 했다. 찰스 슐츠의 연재 만화 《피너츠》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 스누피와 찰리 브라운은 절정의 인기를 바탕으로 1969년 이폴로 10호의 시령산과 달 착륙선의 이름이 된 바 있다. 현재 석촌호수를 수놓고 있는 우주 괴물 패밀리의 육종하고도 발달한 모습은 10월 27일까지 볼 수 있다. 이와 별도로, 롯데뮤지엄에서는 올해로 탄생 70주년을 맞이하기도 한 스누피를 매체로 삼아 우주를 주제로 한 《To the Moon with Snoopy》전을 열 예정이다. 국내외 현대미술계에서 활약하는 34명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이 전시는 10월 17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계속된다. 에디터 **고성연**

사진: 최민서/현대백화점



PRADA

PRADA.COM



보트라운
80777종으로
인디 100%로 7월호에는
50X33cm, 99만원
0914.

보트라운 100%로
인디 100%로 7월호에는
50X33cm, 99만원
0914.

견고한 실루엣이
돋보이는
클라우드바스트
샌더 니트 스니커즈
1백20만원대
프라다.

모든 블루투스® 장치에
연동 가능한 호라이즌
스트라이프 무선 이어폰
1백만원대 루이 비통.

보트라운 양가죽 보머 재킷
1천4백16만원 에르메스.

브루노 마겔로 장사한
에어비타에터 스몰리츠 40만원대
생 로랑 by 인토니 바카렐로.

매끈한 세라믹으로 제작한 J12.
지름 38mm 케이스에 담긴 시크한 블랙 레커
다이얼에 약 0.09캐럿의 다이아몬드
인덱스로 화려함을 배가시켰다.
가격 미정 샤넬 워치.

엔조 앙젤미의 미완
스틸링 링 57만원
보타가 베버리.

나일론과 스웨이드 소재를
조합한 아서 스니커즈
1백30만원 버버리.

for him Selection

정제된 실루엣으로 시크하고 담백하게 즐기는 애슬레틱 무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hwang in woo

화이트 포켓으로 포인트를 준
나일론 백팩. 42X30cm, 1백35만원 지짐시.

상세하게 엮은
우븐 가죽
브라운 슬릿
29215천원 토즈.

시어링에 워킹
에어샤워 이브링
에디터 이주이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XXX 키링 가격
미정 에르메스
제나XXX.

간차니 다류먼트 홀더. 29X21cm, 83만원 살비토레 페라기오.
양면으로 사용 가능한 쇼가죽 벨트
17만5천원 보스 맨.

1년 이상을 포인트로 표현해 온 샤넬
2014년 봄에는 5099만.

0914 02-2056-0914 7 동클레르 프로그래밍 히로시 후지우라 02-514-0900
샤넬 워치 080-200-2700 프라다 02-3218-5331 루이 비통 02-3432-1854
보타가 베버리 02-3438-7682 생 로랑 by 인토니 바카렐로 02-549-5741
버버리 080-700-8800 에르메스 02-542-6622 지짐시 02-546-2790 발렌티노
안다카버 02-2015-4653 벨루티 02-547-1895 에르메스 제나 XXX 02-518-0285
토즈 02-3438-6008 보스 맨 02-515-4088 살비토레 페라기오 02-3430-7854

플래시 메탈 버블로 포인트를 준 레더
벨트 76만5천원 벨루티.

www.brunellocucinelli.com

time for *Spirit*, time for *Harmony*



BRUNELLO CUCINELLI



Brands & Artketing series_3
Fondazione Prada
One of a Kind

영화 <아미는 프라다를 입는다>가 아니더라도 프라다는 이미지가 꽤 강력한 브랜드다. 특히 정형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도전 정신이 연상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는 문화 예술 생태계에서의 출중한 행보가 끼친 영향도 상당하지 않나 싶다. 누구와도 닮지 않은 독창성, 흥미진진한 실험성이 돋보이지만, 동시에 세련됨을 장착한 프라다 파운데이션(Fondazione Prada)의 면면을 보고 누군가 "미술관은 프라다를 입는다"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 법. 그 남다른 유전자와 다면적인 매력은 우리는 정확히 10년 전인 2009년 서울 경희궁에서 펼쳐졌던 '프라다 트랜스포머(Prada Transformer)'를 통해서도 목격할 바 있다. 4개의 면이 회전하면서 다른 공간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4면체 철제 건축물을 무대로 패션, 영화, 아트 등의 콘텐츠를 버무린 독특한 예술 프로젝트. 이 충격적인 구조물을 설계한 렘 콜하스는 "문화가 하지 않는 것을 건축이 할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프라다는 그들만의 문화 예술을 어떻게 만들어왔을까.

"새로운 것은 새로운 방법으로 해나가고, 그러면서도 마치 5백 년 전부터 그 일을 해온 것처럼 훌륭히 해낸다." 20 세기를 풍미한 이탈리아 건축·디자인계 대부 조 폰티(Gio Ponti)는 자신이 태어나고 스리진 고향 밀라노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아 이렇게 찬사를 보낸 적이 있다. 그 같은 행보가 이탈리아의 '전통과 맞닿아 있다고 강조하면서, 따라서 로마나 피렌체처럼 유구하고 찬란한 역사를 지녀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참신한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현대의 밀라노 아발로 가장 이탈리아다운 곳이라고 그는 평했다. 21세기의 밀라노 역시 여전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창조 도시다. 서유럽의 아이코닉으로 여겨지는 주요 도시들은 그 깊고 장대한 역사 때문에 변신을 꾀하기가 쉽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경제 수도이자 디자인의 메카인 밀라노'는 여전히 특유의 '현대성'이 돋보인다. 그 배경에서 은밀하고도 힘차게 작동하는 '문화 엔진'으로 럭셔리 패션 브랜드의 전시 공간을 꼽는다면 언뜻 의아하게 여길 수도 있겠다. 하지만 요 몇 년 새 밀라노 문화 예술 순례를 해본 이들이라면 이 생태계를 떠받치고 움직이는 하나의 큰 동력으로 프라다 파운데이션(Fondazione Prada)을 주목하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당장 밀라노만큼 고도화된 도시 남동쪽의 산업 단지에 자리한 프라다 파운데이션의 전시 공간은 2015년 봄 문을 열었을 때부터 당시 최대 화두였던 밀라노 엑스포 못지않은 주목과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해마다 열리는 블룸버스터 가구 박람회인 살로네 델 모빌레(Salone del Mobile) 기간이나 패션 위크에도 어김없이 많은 이들의 발길을 끌어당겼다. 그들은 멋쟁이들이 넘쳐나는 이 도시에서도 일부러 한껏 차려입고 전시를 보러 간다는 이른바 '핫플'이다. 하지만 허영이 어려 있는 그럴 듯한 패션 피플의 전당으로 본다면 큰코다칠 일이다. 프라다 재단이 지닌 풍부한 글로벌 문화 자산의 핵심 축인 이 공간을 수놓는 콘텐츠는 결코 녹록지 않은 깊이와 스펙트럼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미술계에서 프라다 파운데이션의 존재감은 재단 설립자

인 미우치아 프라다(Miuccia Prada)가 파워 아트 피플에 선정되었다거나 '슈퍼 컬렉터'로 꼽혔다는 사실로 굳이 입증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그 독보적인 건축과 공간, 예술 작품이 관람객과의 호흡으로 일으키는 감각과 지각의 화학작용을 몸소 체험하면 알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밀라노의 문화 예술 풍경을 끌어올린 '트랜스포머'** 운 좋게도 맑고 청정한 하늘이 펼쳐진 날에 프라다 파운데이션 밀라노 건물의 자태를 처음 접했다면 살짜기나마 숨을 '헉' 들이마시게 될지도 모르겠다. 햇빛에 반사되어 빛나는 금색과 회색 건물들, 그리고 가장 높이 솟은 하얀색 타워 등 형태와 높이가 저마다 다른 건축물이 자아내는 묘한 조화. 게다가 옛것과 새것의 융합으로 뭔가 특별한 오라(aura)가 났어 넓은 전시 공간을 접하고는 반하지 않기는 힘들다. '도시 재생'으로 유명한 네덜란드 건축 거장 렘 콜하스(Rem Koolhaas)가 이끄는 OMA가 설계를 맡았는데, 새롭고 매력적인 랜드마크가 주는 힘을 여실히 증명해냈다. 허름한 산업 단지 라르고 이사르코(Largo Isarco)에 있는, 1910년대 지은 옛 증류주 공장이 경이롭게 탈바꿈한 사례다. 외관을 유지한 채 어린이 도시실, 영화감독 웨스 앤더슨이 특유의 동화적인 솜씨를 발휘해 디자인한 카페 등으로 개조한 기존 건물들에 새 건물을 추가한, 1만9,000㎡에 달하는 방



대한 복합 공간이다. 1년에 2~4차례 열리는 대규모 기획전을 품을 수 있는 다용도 공간 포디엄이 입구에서부터 펼쳐지며, 마당 한가운데는 영화나 음악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극장도 있다. 2018년 완공된 60m 높이의 흰색 노출 콘크리트 건물인 타워(Torre)에서는 9층에 걸쳐 소장품을 전시하는데, 바로 제프 쿤스(Jeff Koons)의 커다란 '튤립(Tulip)'이라든지 카르슈텐 뢰러(Carsten Höller)의 '업사이드 다운 머시룸(Upside Down Mushroom Room)' 같은 '컬러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가장 안쪽에 자리하며 황금빛 외관을 뽐내는 '유령의 집(Haunted House)'에는 섬뜩하고 초현실적인 느낌을 주는 로버트 고버(Robert Gober)와 루이스 부르주아(Louis Bourgeois) 작품이 영구 전시되고 있다. 건축물이든 현대미술의 다면적인 매력이 폭넓고 깊게 펼쳐져 있는 이 도발적이기까지 한 '매혹의 전당'의 등장 배경이 펼쳐졌던 이 근방에 활기가 감돌기 시작한 건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 "빈 공간이 많았던, 버려지다시피 한 산업 단지였는데, 재생의 기운이 퍼지고 있어요. 갤러리들이 들어서고 새로운 현대미술 센터도 세워졌지요. 우리 '공간' 바로 뒤에는 건축가 안토니오 치테리오(Antonio Citterio)가 설계한 오피스 빌딩도 생겼고요. 밀라노는 이렇듯 흥미로운 도시 재생의 움직임이 보이는 곳들이 있어서 고무적인 상황이에요." 지난봄 아시아 지역 최대 현대미술 행사인 아트 바젤 홍콩에서 조우했고, 이어 밀라노에서 다시 만난 프라다 파운데이션 소속의 아스트리트 벨터(Astrid Welter)는 이렇게 말했다. 실제로 프라다 파운데이션 공간이 생겼을 때 "밀라노의 도시 풍경을 한층 더 세련되게 바꿔놓았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30년 가까이 '의도대로 쌓이온 혁신적인 문화적 자산' 굳이 이 글에서 미술관이라 칭하지 않는 이유는 프라다 파운데이션 스스로가 '문화와 예술에 헌신하는 센터(A Centre Dedicated to Art and Culture)'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세워두고 있어서다. "우리는 절대로 '뮤지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관용적으로 '미술관(museum)'이라는 단어를 어쩔 수 없이 쓰기도 하지만, 자체적으로는 하나의 기관이자 문화 예술 센터로 여기고 있고, 또 그렇게 조직을 꾸려왔다고 그녀는 설명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그녀의 직함도 'head of programs'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평가이자 큐레이터로 프라다 재단의 콘텐츠를 이끄는 제르마노 켈란트(Germano Celant)도 내부적으로는 '감독(director)'



7 프라다 파운데이션 밀라노의 타워 빌딩에서 선보인 카르슈텐 뢰러(Carsten Höller)의 2000년 작품 'Upside Down Mushroom Room'. Photo by Dellino Selo Legnani e Marco Cappelletti. Courtesy Fondazione Prada 8 덴 플라빈(Dan Flavin, 1933~1996)이 작고하기 전 행랑 조형 작품 'Untitled'(1997)를 설치해 만든 프라다의 성당 모습. 밀라노 변방의 키에사 로사(Chiesa Rossa)에 있는 작은 성당으로, 전 세계에서 방문객들이 찾는다. Photo by Roberto Marossi. Courtesy Fondazione Prada 9 베니스 운하에 자리한 프라다 파운데이션의 전시 공간(Fondazione Prada Venezia). 바로크 양식의 고풍스러운 팔라초인 '카 코너 델라 레지나'(Ca' Corner della Regina)를 문화 예술 공간으로 활용한다. Photo by Agostino Osio. Courtesy Fondazione Prada 10 프라다 파운데이션 베니스에서 현재 열리고 있는 그리스계 거장 야니스 쿠넬리스(Jannis Kouellis, 1936~2017)의 회고전 풍경. 아테네에서 태어나지만 로마에 정착해 전위미술 운동인 '아르테 포베라(Arte Povera)' 그룹의 대표 주자로 활약했다. 프라다 재단의 큐레이팅을 이끄는 제르마노 켈란트가 아르테 포베라라는 용어를 창안한 인물. Photo by Agostino Osio - Alto Piano. Courtesy Fondazione Prada 11 상하이에 있는 유서 깊은 고택을 활용한 전시 공간(Prada Rong Zhai)에서 '자신들' 열린 <What Was It>. 폴란드 작가 고슈카 마추가(Gosha Macuga)의 개인전으로 기술 문명이 발달한 사회에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안드르이 로보티 등장해 화제가 된 전사로 밀라노, 뉴욕 등을 기쳤다. Photo by Alessandro Wang. Courtesy Fondazione Prada 12 프라다가 2009년 서울 경희궁에서 건축가 렘 콜하스 등과 공동으로 진행한 '프라다 트랜스포머' 프로젝트. 크레인용 이용해 회전 가능한 4면체 구조물을 설치하고 패션, 영화, 미술 등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미술 부문은 프라다 재단이 맡았다. 사진 제공: 프라다



이라 불러지 않는다고, 누군가가 '지휘(directing)'하는 개념보다는 같이 아이디어를 모으고 행동하는 집단 지성으로서의 면모를 중시하기 때문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조직은 출발점부터 남달랐다. 2015년 모습을 드러낸 라르고 이사르코의 새 복합 공간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됐지만, 프라다의 '행동'적인 예술 후원은 꽤 탄탄한 역사를 자랑한다. 미우치아 프라다와 그녀의 경영인 남편 파트리치오 베르텔리(Patrizio Bertelli)가 자신들의 DNA와 닮은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예술 프로젝트를 위해 '프라다 밀라노-아르테(Prada MilanoArto)'를 만든 1993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니 말이다. 이어 2년 뒤 프라다 재단이 설립되면서 뜻과 결이 맞는 지구촌의 다양한 동시대 아티스트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벌였다. 1995년 제르마노 켈란트가 합류하면서 전개한 에니시 커퍼어의 개인전(마루를 등글게 깨내고 스테인리스 스틸 작업을 넣은 'Turning the World Inside Out'을 선보여 화제가 됐다), 최근 그 레미상을 받기도 한 뮤지션이자 아티스트인 로리 앤더슨(Laurie Anderson)과의 협업(1998년) 등에 이어 2000년대에 들어서도 마크 퀸(Marc Quinn), 엔리코 카스텔라니(Enrico Castellani), 스티브 맥퀸(Steve McQueen) 등과 도전적이고도 의미 있는 작업을 활발하게 펼쳤다. 미국의 미니멀리스트 개념 미술가인 덴 플라빈(Dan Flavin)과 함께 밀라노 변방인 키에사 로사(Chiesa Rossa)에 있는 작은 성당 산타마리아 안눈치타(Santa Maria Annunciata)에 설치한 형광 설치 작업(1997년)은 여전히 도시의 명물로 남아 있으면서 세계 곳곳에서 온 순례객을 맞이하고 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있는 산타마리아 델라 그라치에 성당도 있지만, 현대미술이 녹아 있는 안눈치타 성당도 도시 풍경에 매력을 더해주고 있는 셈이다. '밀라노 성당 프로젝트'가 전개될 무렵 프라다 재단에 들어 왔다는 아스트리트 벨터는 "처음에는 흥미로운 아트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가 점차 철학 세미나라든지 영화 등 다른 프

로그래도 정기적으로 추가하게 됐다"면서 "중요한 건 이미 1990년대에 패션 하우스로부터 독립성을 지니는 강력한 문화 예술 기관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과 비범이 존재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꾸준한 혁신과 도전의 행보 속에서 이제는 엄연히 브랜드에서 지원받는, 아스트리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립이지만 거의 공공' 같은 문화 예술 플랫폼으로 인정받게 된 것.

저마다 다른 개성과 매력을 품고 있는 글로벌 공간들 '공공재' 같은 위상을 지나다 보니 실험성이 예전보다 떨어진다든 목소리도 있지만, 안드르이 로보티 등장하고 영화 세트장을 통째로 옮겨온 것 같은 기획전을 보노라면 그렇지만도 않은 듯 느껴진다. 게다가 요즘 프라다 파운데이션의 보폭은 더 빨라지고, 넓어지고 있는 듯하다. 밀라노에는 도심 한복판에 사진 미술을 위한 전용 공간인 오세르바토리오(Osservatorio)를 운영하고 있는데, 건물 꼭대기 층에서 도시가 한눈에 보이면서 '비주얼 아트'를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는 세련된 공간이 매력적이다. 또 비엔날레가 열리는 아름다운 수상 도시 베니스에서도 주목할 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 베니스 운하에 자리 잡은 18세기 저택(palazzo)인 카 코너 델라 레지나(Ca' Corner della Regina)를 인수해 운치 있는 전시 공간으로 변모시켰다. 이 고풍스러운 팔라초에서 그동안 주로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한 주제에 있는 기획전을 1년에 한 차례씩 진행해왔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그리스계 설치미술가인 야니스 쿠넬리스(Jannis Kouellis) 회고전을 열었다. 또 아시아 지역에서는 브랜드 차원에서 상하이의 고택을 빌려 패션, 아트 등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프라다 롱자이(Prada Rong Zhai)'를 두고 있고, 올해에는 아트 바젤 홍콩에서도 전시를 선보였다. 한국에서도 2009년 트랜스포머와 같은 파격적인 프로젝트가 다시금 펼쳐졌으면 하는 기대가 그저 욕심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글: 고희연

highly Precious

잠시만 한국에 머문다. 지금 이때 아니면 만나보기 힘든, 그래서 더 가치 있는 하이주얼리 피스.

photographed by park jac yong

불가리아 디바스 드림 네크리스 화이트 골드 소재에 0.517캐럿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개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하이주얼리 네크리스. 여성의 우아함과 로미오 아름다움, 불가리아의 끊임없는 창의성이 만나 완성한 디바스 드림 컬렉션으로, 공작 꼬리에서 영감을 받은 부채꼴 모티브가 토포처럼 생동감 있는 곡선을 이룬다. 문의 02-2066-0170

파아제 골드 스타이트 아방 작은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18K 핑크 골드 프레임에 텍사스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바스라지 지 않도록 차분하는 패더 마카트리 기법을 사용해 실제 구스와 펄리 칸의 기쁨을 재현했다. 북극의 아침 설경과 태양 빛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아티스트 넬리 소니와의 협업으로 탄생했는데, 1.02캐럿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만 따로 떼어 스타이트 아방으로도 연출할 수 있다. 제작 시간은 무려 1백시간. 문의 02-540-2297

부세온 아티스탈 플라워 링 동화에서 보인 영웅히 서들지 않는 꽃을 현실화한, 생화를 사용해 만든 링이다. 기계가 탐지할 수 없는 연약한 꽃잎의 특성과 물기 등을 살리며 3D 스캔을 하고, 꽃잎을 안정화 하고, 보호 필름을 입히고, 레저 작업을 하는 긴 과정을 거쳤는데, 자세한 기술적 프로세스와 노하우는 매종의 비밀. 센터 스톤에는 7.29캐럿의 마다카스카르산 비올렛 사파이어를 세팅했고, 티탄늄으로 표현한 암술에도 작은 사파이어를 세팅해 파우더리한 효과까지 냈다. 꽃잎 뒷면까지도 출출하게 핑크 사파이어로 장식했다. 링의 보디 메탈은 모두 티탄늄이다. 문의 02-772-3508

파아제 리얼라이즈드 하이주얼리 워치 장인이 직접 하나 하나 섬세하게 굽어 캘리브라 테크 인그레임을 한 브레이슬릿에 알케미 향제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케이스를 매치했다. 지름 31mm의 이 케이스가 장지에는 총 3.84캐럿의 24개 마카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는데, 하이주얼리 워크숍에서 꼬박 10시간 동안 만들었다. 자체 제작 430p 울트라 신 핸드오우닝 무브먼트를 장착했고, 약 43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다. 문의 02-540-2297 에터 장미



HOTEL SHILLA ARCADE
SHINSEGAE MAIN GANGNAM CENTUM CITY
HYUNDAI MAIN COEX BUSAN DAEGU
LOTTE AVENUE AVENUE WORLD TOWER
GALLERIA LUXURY HALL EAST AK PLAZA BUNDANG STORE
T. 02-2230-1225 WWW.COLOMBOVIADELLASPIGA.COM

COLOMBO
1955
VIA DELLA SPIGA
MADE IN ITALY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파이제 구버너 워치** 자체 제작한 울트라 신 셀프와인딩 루브먼트 855P를 장착한 타원형의 핑크 골드 케이스와 파베주얼 캘린더가 완벽한 균형을 이룬다. 시, 분, 스물 세컨즈, 세컨드 타임존, 데이/나이트 인디케이터, 레트로그레이드 방식의 요일과 날짜창을 갖춤으로써 8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제공한다. 케이스 지름은 43mm로 7천백만원. 문의 02-540-2297 **파이제 라이미노르 1950 3레인지 GMT 파워 리저브 오토매틱 아케 아이오** 3레인지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안티마스 오토매틱 캘린더 P.9012로 구동한다. 4시 30분 방향에 파워 리저브 인디케이터, 9시 방향에 스물 세컨즈를 더했고, 세컨즈 리셋과 GMT, 100m 방수 기능을 갖춤. 케이스 지름은 42mm이며 1천550만원. 문의 02-3467-8455 **에르메스 카이프 코드 GMT 오토매틱 기요** 세 장식의 블루 다이얼 6시 방향에 위치한 사브 다이얼을 통해 세컨드 타임존의 시간을 읽는다. 이와 함께 앙증맞은 데이/나이트 인디케이터를 배치했고, 12시 방향의 날짜창은 홈 타임을 기준으로 작동한다. 42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며 스틸 케이스의 크기는 36.6x35.4mm로 9백만원. 문의 02-542-6622 **몽블랑 4810 오르비스 타라**를 북극에서 바라본 대륙과 각 타임존을 대표하는 24개 도시 이름을 표시한 다이얼이 인드족이다. 8시 방향의 푸서를 눌러 현재 타임존에 해당하는 도시를 6시 방향의 작은 레드 삼각형 인디케이터에 맞춘 뒤 크라운을 이용해 현재의 시간과 분을 조정할 수 있다. 50m 방수 기능을 제공하는 스틸 케이스 지름은 43mm로 7백90만원. 문의 1670-4810 **에거 크롬트르 플러리스 크로노그래프 WT** 세계 주요 도시 24곳의 시간을 한눈에 보여주는 모델로, 10시 방향에 위치한 크라운을 돌려 원하는 도시에 맞추면 낮과 밤 디스플레이가 해당 시간이 주간인지 야간인지 표시한다. 이워 카운터, 30분 카운터, 크로노그래프를 갖춤. 타임존 케이스의 지름은 44mm로 가격 미정. 문의 02-6905-3998 **본진 콘퀘스트 V.H.P GMT 플러리스 세팅** 정확성과 편의성을 갖춘 GMT 워치로, 한 번의 크라운 푸스로 홈 타임과 트래블 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스마트폰의 플래시 빛을 분사하면 손쉽게 타임존을 변경할 수 있는 플래시 세팅 기능을 갖춤. 케이스 지름은 41mm로 1백55만원. 문의 02-310-1897 **카르띠에 드라이브 드 카르띠에 스몰 컴플리케이션** 10시 방향에 레트로그레이드 방식의 세컨드 타임존, 12시 방향에 대형 날짜창, 3시 30분 방향에 데이/나이트 인디케이터, 6시 방향에 스물 세컨즈를 배치했다. 세련된 쿼츠형 스틸 케이스의 지름은 41mm로 1천만원. 문의 1566-7177 **에디터 아베미**



rule the
Journey

출장과 여행을 자주 가는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한 방식으로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정교한 타임피스 7.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아사미에 사진



Brooks Brothers

THE ORIGINAL AMERICAN BRAND

현대 판교점 6F | 031.5170.1634 현대 충정점 4F | 043.909.4475 현대 목동점 B1F 레드플러스 | 02.2163.1993
 현대 미아점 5F 레드플러스 | 02.2117.1555 갤러리아 타임월드점 6F 레드플러스 | 042.720.6618 롯데 에비뉴엘 잠실점 4F | 02.3213.2490
 롯데면세점 코엑스점 B1F | 02.2052.6337 스타필드 코엑스몰 B1F 레드플러스 플래그십스토어 | 02.6002.1818 신세계 강남점 7F 레드플러스 | 02.3479.1383

BROOKSBROTHERS.CO.KR

Happy together

어린 시절 입을 즐겁게 해줬던 달콤한 캔디처럼, 눈을 즐겁게 해주는 캔디 컬러 주얼리.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볼가리 다마스 드림 네크리스 유려한 곡선, 아이코닉한 부채꼴 모티브, 다양한 젠스톤이 아우러진 다마스 드림 컬렉션의 네크리스. 로즈 골드 에메랄드, 파란도트, 루블라이트, 칼세다니아, 다이아몬드 등을 세팅했다. 6천5백만원대. 문의 02-2056-0170

볼가리 볼가리 볼가리 젤라티 링 윗트 넘치는 폴리팝 주얼리 볼가리 볼가리 젤라티의 링 버전. 로즈 골드 소재에 마더오브펄과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2백만원대. 문의 02-2056-0170

부세론 리틀레 워치 1947년 탄생한 후 지속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아이코닉 타원 케이스. 특허 받은 편하고 쉬운 스트랩 교체 방식으로 기분에 따라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 20X35.5mm 스틸 케이스는 버티컬 고드롬 모티브로 장식했고, 크라운에는 사파이어를 세팅했다. 블랙 페이먼트 카프 스트랩으로 출시하며 핑크 리자드 스트랩은 30만원대에 구입 가능하다. 4백만원대. 문의 02-6905-3322

반달리프 아펠 부동 도르 브라이슬릿 진귀한 메달 세공부터 각각의 모티브를 정화하고 정교하게 조형하는 과정까지, 모든 노하우를 하나의 주얼리에 담았다. 옐로 골드와 다이아몬드, 크리스토프레이즈, 오탁스를 조합한 브라이슬릿. 5천7백만원대. 문의 00798-852-16123

타파니 탄자이트 슬라스트 링 1900년대 타파나가 처음 발견해 공개한, 오직 탄자이트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천연 원석 탄자이트의 신비롭고 깊은 푸른빛이 매력적이다. 2줄로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쿠션 컷 탄자이트를 감싸는 플래티넘 링 1천3백만원대. 문의 02-547-9488

에르메스 케이프 코드 워치 가로세로 23mm의 작은 정사각형 스틸 케이스에 손목에 두 번 감을 수 있는 라임 컬러 카프 스킨 스트랩을 매치했다. 3백만원대. 문의 02-542-6622

카르다에 라쿠스 드 카르다에 네크리스 선유정 옆에 자리한 피그의 형태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했다. 성취를 뜻하는 크리스토프레이즈와 평안을 뜻하는 라피스 라줄리를 매치했다. 1억원대. 문의 1566-7277

프레드 포스텐 브라이슬릿 해킹 케이블을 꼬아 만든 듯한 트위스트 형태가 특징이다. 포스텐 미디엄 사이즈 모델로 오렌지 케이블에 네온 오렌지 레커 차리한 옐로 골드 버클을 매치했다. 2백만원대. 문의 02-514-3721

부세론 세팅 보컬 시트린 펜던트 이어링 벨의 마리를 상징하는 드림 모티브를 사용했다. 꿀을 이용해 비늘을 사산적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20.94캐럿의 시트린과 총 32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옐로 골드 이어링 2천만원대. 문의 02-6905-3322 에디터 장미윤



Ferragamo



Women

(우부터 시계 방향으로) **반클리프 아펠 참 위치** 1968년 처음 탄생한 알함브라 컬렉션. 이 컬렉션에서 시계를 처음 선보인 것은 2008~10이다. 진실한 사랑, 행복, 건강과 부를 상징하는 참이 지름 32mm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 주위를 360도 회전하며 시간의 수호신과도 같은 역할을 해준다. 함께 매치한 블랙 사틴 스트랩은 매장에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교체할 수 있다. 2천4백만원대, 문의 00798-852-16123 **에거 르클로르 리베르스 클래식 미디엄 씬** 1931년도에 탄생한 리베르스의 황금 비율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리베르스 클래식. 클래스를 상징하는 거드룬, 실버 그레이 다이얼, 블랙 전사 처리한 직선 아라비아숫자 인덱스, 블루 핸즈,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가죽 스트랩이 한눈에 쏙 들어온다. 5백만원대, 문의 02-6305-3998 **볼가티 세르반티 세투토리** 1940년대부터 시작된 세르반티 워치의 역사, 세르반티 세투토리는 본 투 비 골드(Born to Be Gold)란 테마 아래 세르반티 모티브를 현대판으로 새롭게 디자인한 모델이다. 벨 마린을 연상시키는 케이스와 비늘 모티브 육각형 링크로 이뤄진 유연한 브레이슬릿을 포함한 다급함이 돋보인다. 지름 33mm 케이스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18K 로즈 골드 바전 3천3백만원대, 문의 02-2066-0170 **카르띠에 베누아** 1912년에 탄생한 요조를 담은 시계 베누아는 1950년대 말까지 많은 수정을 거친 후, 마침내 지금의 디자인으로 탄생했다. 지난 4월 말에 선보인 이 모델은 오리지널 모델보다 슬림한 스트랩, 샌드블라스트 처리한 실버 다이얼에 옐린 로마숫자, 케이스와 완벽히 결합한 백 케이스 등이 특징이다. 퀴츠 무브먼트를 장착했고, 18K 옐로 골드 케이스에 약아귀 스트랩이 함께한다. 1천3백만원대, 문의 1566-7277

legendary Classic

그 뿌리는 짧게는 60년 전, 길게는 1백여 년 전으로 올라간다. 동시대의 가장 세련된 감성을 담아 조금씩 변형되어온,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는 클래식 워치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Men

(우부터) **피아제 알티플라노** 1957년 바젤월드에서 선보인 9P 워치가 현재 알티플라노 모델의 조상님. 그 반대로 모델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클래식한 우아함이 느껴진다. 18K 핑크 골드 케이스에 자체 제작 430P 초박형 무브먼트를 적용했다. 1천9백만원대, 문의 02-540-2297 **타파니 이스트웨스트 오토매틱** 1940년대 타파니의 여행용 워치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시킨 이스트웨스트 워치는 간결한 직사각형에 가로로 세팅된 다이얼이 특징. 스틸 케이스는 46.5x27.5mm 사이즈이며 화이트 기호세 다이얼에 블랙 약아귀 스트랩을 매치했다. 6백30만원대, 문의 02-547-9488 **IWC 포르투가저 퍼페추얼 칼린더** 포르투가저 컬렉션은 1939년에 출시되었다. 이 퍼페추얼 칼린더 모델은 실제 달의 주기와 오차가 5백77년 동안 단 하루에 지나지 않는 정확한 문레이즈 디스플레이가 큰 강점. 서브 다이얼에서는 날짜와 파워 리저브, 그리고 월과 요일 및 스물 세컨즈를 표시해준다. 지름 44.2mm의 18K 레드 골드 케이스에 산토리니의 다크 브라운 약아귀 스트랩을 매치했다. 4천9백70만원, 문의 02-3440-5876 **에디터 장라울**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지난 한 세기 동안 일어난 다채로운 예술적 움직임에서 영감을 얻은 컬러와 텍스처를 접목한 나이키 에어맥스 270 리프트 17만9천원 **나이키**, 이크 레디, 스웨이드 등의 가죽 조각과 메시 페넬릭을 패치워크한 여성용 레이스업 스니커즈 31만8천원 **에코**, 내온 컬러로 포인트를 준 여성용 레이스업 프리트 포니 스니커즈 41만7천원 **아쉬**, 그래픽적인 타이거 스트라이프와 퓨처스틱한 블랙 미드솔이 아우라진 과감한 디자인의 빅 로고 트레이너 17만원 **오너스카 타이거**, 1990년대 후반 클래식한 라운드 스타일에서 영감을 얻은 이코닉트 캐주얼 W 스니커즈 11만9천원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에디터 이베이**

나이키 02-3452-8294 **에코** 031-628-4800 **아쉬** 070-8783-8686
오너스카 타이거 060-929-3535 **아디다스 오리지널스** 02-547-0325



airy Steps
부담 없이 신을 수 있어 더욱 좋은,
편안하고 감각적인 스포티브 스니커즈 셀렉션.
photographed by choi seung hyuk

의상, 소품 모두
가격 미정 루이비통.



Show of Style

더욱 풍성해진 볼륨, 화려한 컬러, 프린트의 과감한 믹스 매치.
댄디함과 자유분방함을 넘나드는 남자들의 뉴 룩. *photographed by park ja wook*



(왼쪽부터 순서대로) ● 블랙 레더 코트 가격 미정, 블랙 재킷 3백79만원, 레드 톱 가격 미정, 블랙 팬츠 1백53만원, 레이스업 슈츠 1백43만원, ● 네이비 니트 톱 가격 미정, 네이비 터틀넥 가격 미정, 블랙 팬츠 가격 미정, 블랙 부츠 1백26만5천원, ● 블랙 코트 3백96만원, 올 니트 톱 가격 미정, 실크 니트 톱 가격 미정, 블랙 팬츠 1백53만원, 블랙 부츠 1백26만5천원, ● 네이비 니트 톱 1백53만원, 그레이 니트 톱 1백53만원, 블랙 레더 팬츠 6백32만원, 블랙 부츠 1백85만원, 모두 보타가 배너다.



의상, 소품 모두 가격 미정 예쁘게 포장도 제니 XXX.
왼쪽부터 세 번째 모델 부츠 가격 미정 예쁘게.

(왼쪽) 카검 코트 5백20만원, 화이트 레이스
장식 셔츠 2백10만원, 그레이 스트라이프
팬츠 1백32만원, 블랙 부츠 가격 미정.
(오른쪽) 체크 코트 5백70만원, 니트 롱
1백70만원, 블루 스트라이프 셔츠 가격 미정,
그린 & 핑크 스트라이프 티셔츠 1백17만원,
베이지 팬츠 1백76만원, 페이즐리 타이
가격 미정, 브라운 부츠 가격 미정, 모두 구찌.



(왼쪽부터 순서대로) ① 레드 니트 카디건 3백70만원, 레드 니트 톱 1백70만원, 그레이 팬츠 89만원 **발렌티노 언더카버**, 양테일러 스니커즈 1백1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② 네이비 피코트 가격 미정 **발프 로렌 퍼플 라벨**, 블랙 재킷, 프린트 셔츠, 블랙 팬츠 모두 가격 미정 **벨루티**, 블랙 부츠 가격 미정 **구찌**, ③ 브라운 코듀로이 패딩 3백29만원, 그레이 잠업 셔츠 79만원, 브라운 팬츠 93만원, 브라운 슈즈 99만원 모두 **산바토레 페라기오**, ④ 프린트 코트 6백40만원, 블랙 셔츠 가격 미정, 네이비 팬츠 가격 미정 **발렌티노 언더카버**, 블랙 스니커즈 1백1만원 **발렌티노 가라바니**.



(왼쪽) 네이비 재킷, 블루 셔츠, 캐주얼 터틀넥, 네이비 팬츠, 블랙 부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오른쪽) 네이비 더블 코트, 그레이 셔츠, 그린 터틀넥, 네이비 레드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에르메스**, 블랙 부츠 1백26만5천원 **보타가 베네다**.



(왼쪽부터 순서대로) ● 블랙 패딩 코트 2백55만원, 블랙 재킷 2백75만원, 옐로 셔츠 96만원, 블랙 팬츠 1백9만원, 블랙 타이 28만원, 블랙 & 브라운 레이스업 슈즈 1백9만원 모두 **버버리**, ● 퍼 장식 칼라 캐주얼 코트 7백45만원, 잠입 니트 1백10만원, 블랙 셔츠 가격 미정, 블랙 팬츠 1백49만원, 블랙 레이스업 슈즈 1백45만원 모두 **렌디**, ● 블랙 지퍼 디테일 롱 1백42만원, 블루 셔츠 1백9만원, 블랙 팬츠 1백19만원, 블랙 타이 28만원, 레이스업 슈즈 가격 미정 모두 **버버리**, ● 스트라이프 더블코트 4백39만원, 브라운 재킷 2백39만원, 옐로 셔츠 2백55만원, 브라운 팬츠 1백2만원 모두 **버버리**, 블랙 레이스업 슈즈 1백19만원 **차차스**.



(왼쪽) 블랙 & 그린 니트 롱 5백50만원대, 로즈 프린트 셔츠 가격 미정, 그레이 스트라이프 팬츠 가격 미정, 화이트 레이스업 슈즈 1백만원대, (오른쪽) 블랙 레더 코트 8백40만원대, 핑크 니트 카디건 1백만원대, 블랙 팬츠 가격 미정, 블랙 레이스업 슈즈 1백만원대, 모두 **프라다**.

헤어 **김우준**
 메이크업 **홍원정**
 모델 **안재형, 이민석, 한지, 박주형**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어시스턴트 **김만민, 김승준**



루이비통 02-3432-1854
 보타가베레 02-3438-7682
 에르메스 02-542-6622
 구찌 1577-1921
 벨루티 02-547-1896
 버버리 090-700-8800
 렌디 02-2066-0104
 프라다 02-3218-5331
 차차스 02-3479-1140
 밀프 로렌 퍼플 라벨 02-6004-0143
 발렌티노 언더커버 02-2015-4653
 발렌티노 가본버니 02-2015-4653
 산바토레 페라기모 02-3430-7854
 에르메비집도 제나XXX 02-3479-62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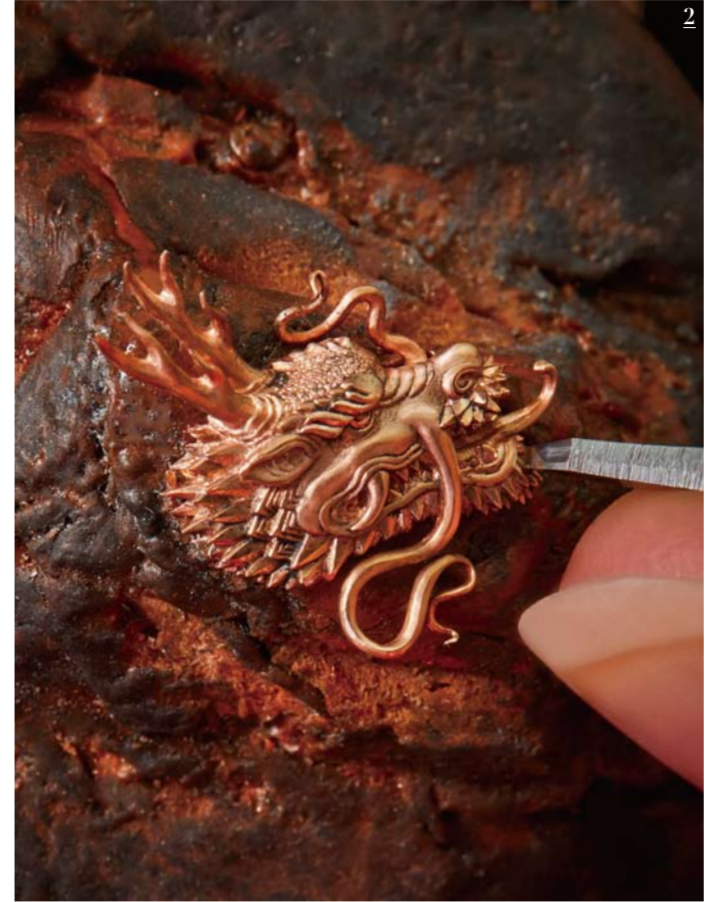
Scent of a man

깊어가는 가을 향이 느껴지는 남자 향수 6.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달타르 탈디오 오드 파뮌 사만과 숲, 인도차이나
통킨 지역 고지대에서 볼 수 있는 안개에서 영감을 얻었다.
센투오드에 신축한 사이프러스의 머플, 송진 향이 어우러
진 세련된 향. 75ml 21만원, 문의 02-3479-6049 소
파드 카툰 오브 킹 이카르 몰약 오드 아사피(Oud Assail)
에 삼바 제스민, 투베르조, 센투오드, 사이프러스 나무
모사 등 귀한 재료를 배합해 인도 마방리자 공전의 관공적
이고 신비로운 매력을 표현했다. 100ml 39만5천원, 문의
080-990-3089 보타가 베네타 일루치오네 포 힐 따뜻한
우드 노트와 신축한 레몬, 썬베인 오렌지 향이 완벽한 가을
공기를 연상시킨다. 50ml 12만5천원, 문의 080-850-
0708 구피 메도아 뉘 오더 부드러운 향과 광택의 용의 캐비닛
과 목직의 마스크 향이 깊고 향기롭다. '남녀 모두에게 잘 어
울리는 미니멀 아로마티 커널 향으로 카툰 향수로 추천.
100ml 16만2천원, 문의 080-850-0708 조 말론 런던
잉글리쉬 오크 앤 헤이즐넛 그린 헤이즐넛과 사탕무, 로
스타드 오크 인솔루트가 조화를 이루어 휴 내음을 연상시
키는 유혹적이고 활동한 향. 100ml 18만8천원, 문의 02-
3440-2750 펜탈리온스 테디 시터, 펠라의 부드러운 파
츨라, 베르베르의 목직향 향이 활력을 불어넣으며 마스크
를 가미해 고급스러운 캐시미어 스웨터를 상기시키는 향.
75ml 37만원, 문의 02-363-5454 에타리 야쿠이



1 인드레아로부터 페인팅까지 모두 정교한 수작업으로 완성한 용의 모습. 2 투명 사파이어에 심혈을 기울여 용의 형상을 조각하고 상세한 골드 페인팅 공정을 거친다. 3 RM 57-03 투르비옹 사파이어 드래곤은 총 55파스의 재차되는 리미티드 에디션. 제품 이미지 속 기본 TPT® 및 다양한 소재의 케이스로 출시된다. 4 케이스에 담긴 용의 형상은 리드 오픈 액션의 향을 이어오고 있는 올리비에 보세(Olivier Bosc) 아틀리에 장인들의 세심한 공정을 통해 탄생했다.



absolute Masterpiece

파격적인 시도와 거침없는 행보로 고급 시계 시장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리처드 밀. 동양 신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절대적 존재이자 인내와 성공의 상징인 용을 다이얼에 구현한 신비로운 매력의 새로운 아티피스 컬렉션을 공개했다.

About Richard Mille

2001년에 탄생한 리처드 밀은 모험과 혁신, 특별한 기술과 대담한 디자인이 어우러진 시계를 선보이는 파인 워치메이커로, 현대 고급 시계 제조 분야의 선두 자리를 단숨에 차지했다. '완벽을 향한 끝없는 탐구 정신이 핵심 철학. 스위스 레브루레 지역에 근간을 두고 끊임없는 연구와 지속적인 소재 개발을 통해 무브먼트는 물론이고 다이얼, 스플라인 스크루, 투르비옹 케이스 등 외장 부속품에 이르기까지 시계의 모든 부분을 책임진다. 창립자 리처드 밀의 이니셔를 탄 RM 001로 고급 시계 시장에 첫발을 내디딘 후 내놓은, 직사각형 케이스의 RM 016 및 RM 017 투르비옹, 라운드 형태의 케이스 RM 025, RM 033 등 기존의 톤노(tonneau) 형태를 벗어난 60여 개 이상의 위치는 인하우스 매뉴팩처 프라이트에서 완성한 결과들. 이번에 공개한 RM 57-03 투르비옹 사파이어 드래곤 위치 역시 각 위치 컬렉션을 대표하는 핵심 기술을 집약했다. 동양 신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인 용을 다이얼에 세심하게 형상화한 제품으로, 강렬하고 대담한 디자인과 리처드 밀의 혁신적인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타임피스다.

RM 57-03 Tourbillon Sapphire Dragon

용은 동양 신화에서 고귀하게 여기는 신비로운 존재. 용의 장엄하고 화려한 면모 때문에 이를 표현한 RM 57-03 투르비

옹 사파이어 드래곤 위치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낸다. 스크래치 내성이 강한 사파이어는 질삭 과정에서 극도의 정밀성과 수순 높은 세심함을 요구하기에 용의 형상을 구현하기 위해 올리비에 보세 아틀리에에서 오랜 시간 숙련된 장인들이 심혈을 기울였다. 투명 사파이어로 용의 몸통을 입체감 있게 제작해, 몸통의 비늘부터 날카로운 발톱과 수염, 눈까지 모두 수작업으로 세공한 후 골드 페인팅을 이용해 혀와 눈을 극사실적으로 묘사했다. 또 태양과 불의 기운을 지닌 용과 물을 상징하는 사파이어가 음양의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 가법지만 내구성이 뛰어나고 스크래치에 강한 카본 TPT®로 제작한 가로세로 42.7x50mm 크기 케이스에 장착한 투르비옹 무브먼트는 리처드 밀을 대표하는 메커니즘. 케이스 백의 투명한 사파이어 글라스를 통해 무브먼트를 과감하게 드러냄으로써 정교하고 다층적인 기계식 메커니즘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다. 블랙 카본 소재 케이스와 투명 사파이어, 격조 높은 18K 레드 골드 핸즈와 크라운이 조화를 이루는 이 신선한 아티피스 컬렉션은 공개와 동시에 까다로운 시계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RM 57-03 투르비옹 사파이어 드래곤은 아시아 지역 특별 한정판으로 오직 55점, 전체 사파이어로 제작한 케이스는 단 5점 선보이며, 카본 TPT® 케이스 버전 및 기타 소재로도 출시한다. 문의 02-512-1311 에타리 야쿠이



● sponsored by RICHARD MILLE



Urban Warrior

세련된 컬러와 고급스러운 소재로 차별화된 항공 정파를 눈여겨보자. 보타가 베네타, 프라다를 필두로 많은 브랜드에서 강인한 여전사를 연상시키는 가죽 재킷을 선보였다. 매끄러운 양가죽과 시아원 소재를 덧댄 인감이 실용적인 보머 재킷 2백80만원대 **볼로 할프 로렌**, 문의 02-6004-0133

Check-in

디자인이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요즘 태입러드 재킷은 정교한 태입러딩과 글한 에티튜드를 결합한 것이 특징이다. 어담 부분을 변형하거나 재킷과 길이가 같은 미니드레스, 콤팩트 부츠를 매치하는 등 흥미로운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부드러운 캐시미어 소재로 제작한 인도라 2B 시투라얼 재킷 4백90만원대 **로로 피아나**, 문의 02-546-0615



Patent Leather

소재 역시 가죽의 활용이 두드러지는데, 광택감이 돋보이는 패이텐트 레더가 두각을 나타냈다. 슬리드 형식으로 클래식하게 표현하거나 아역 혹은 벨가죽 패턴을 적용해 시크함을 강조한다. 견고한 태입러딩이 돋보이는 송이지가죽으로 완성한 재킷 6백89만원 **살비토레 페라기노**, 문의 02-3430-7864



Jet Black Fever

블랙 & 화이트로 이루어진 모노크롬 코드가 그 어느 때보다 강세다. 그중 어느 아이템이든 매치하기 쉬운 칙칙 같은 어둠을 뜻하는 짙 블랙 컬러 재킷이 대세를 이루는데, 디자이너들은 그래픽적이고 조각적인 태입러딩과 디테일을 통해 블랙 컬러 내에서 신선한 변화를 유도했다. 스웨덴에 영보싱 효과를 더해 재킷을 준 울 재킷 3백79만원 **보타가 베네타**, 문의 02-3438-7882

Cover me up

실험적인 접근은 뒤로하고 아우터의 본질적 요소에 집중했다. 실루엣, 소재, 디테일의 섬세한 조합을 통해 제안하는 실용적인 남녀 가을 아우터 트렌드 8. *photographed by jung ji an*



Natural Leopard

이런 시즌에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에-덱 프린트는 변형하거나 과감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묘사해 자연미를 살리는 것이 관건이다. 파위 같은 자연스러운 소재에 적용해 날것 그대로의 야생적인 매력을 전한다. 전면에 레오퍼드 프린트를 적용한 인조 퍼 재킷 3백30만원대 **사카이**, 문의 02-541-7510

Bright Think

브라운 팔레트로 물들인 F/W 시즌 런웨이에 경쾌한 블루와 옐로 같은 색상이 활력을 불어넣었다. 특히 막시마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톤온톤으로 매치한 에메랄드와 블루, 옐로 톤을 선보이며 컬러전의 컬러 스펙트럼을 넓혔다. 카나 모헤어로 완성한 재킷 2백80만원 **막시마라**, 문의 02-511-3935



Vintage Classic

가을 패션 = 체크 패턴이라는 불변의 공식이 고루하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디자이너들이 다채로운 디테일을 통해 변화를 하는 덕분. 이번 시즌 체크는 기교는 없고 1970~80대의 클래식한 파리 부르주아 스타일을 회고했다. 트리밍을 덧대 반지하한 매력을 배가한 비스코스 재킷 1백75만원 **에트로**, 문의 02-511-2573



Utility Details

재킷의 실용성이 강조되면서 프라다를 비롯해 에르메스, 사카이, 막시마라에서 깔끔하고 견고한 실루엣에 유틸리티 디테일을 과감하게 적용한 멋스러운 재킷을 다채롭게 제안했다. 드러나지 않은 물론 캐주얼한 패션에 특 걸쳐 자유분방한 세련미를 더해줄 것. 남작하게 누른 울 소재에 사파리 포켓과 벨크로 패치를 더한 재킷 2백90만원대 **프라다**, 문의 02-3218-5331 **에디터 이주이**

editor's Pick

수분을 채우고 영양을 더하는 스킨케어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 건강한 피부 표현을 위한 13가지 뷰티 솔루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랑콤 입술퀴 루비 크림 #01 레드 루비 랑콤은 레드 컬러 표현에 능해 미묘한 톤 차이를 감각적으로 잡아내고 다양한 색조로 풀어낸다. 쏘폰한 텍스처가 특징인 입술퀴 루비 크림 라인 역시 디제이온 레드 컬러 팔레트를 갖췄다. 대표 컬러 #01 레드 루비는 율가를 클래식한 촉을 연출하고 심은 아메가 강력 추천. 3g 4만2천원, 문의 02-6905-3747. *by 에디터 이혜미*

맥 호가스 파카스 아이메도우 X8 골드 브론즈부터 듀오 크림 핑크에 로지 브라운까지 디제이온에 구색한 팔레트 덕에 화려한 파티 메이크업은 물론 지친스킨은 청순 메이크업과 분위가 있는 극묘한 가을 메이크업까지 가능하다. 파우더가 풍치지 않고 부드럽게 발려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마무리된다. 14g 6만9천원, 문의 02-3440-2782. *by 에디터 이주이*

오베에 비 라메레바 골드 리스트 나리닝 헤어 오일 스킨케어 오일, 블랙리 라이 블리 등 향리부터 스타의 헤어 이터스트로 활동했던 오베에 카탈라스가 선명한 헤어 케어 브랜드 오베에의 아이코닉 제품. 최근 잦은 열매와 평으로 김과도 길라진 마리아가 끝내 발라 드라하러나 즉각적으로 부드럽고 청량거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100ml 6만2천원, 문의 02-2056-1221. *by 에디터 이혜미*

리베탈레트 뉴 트리아지 프로그래밍 듀피 앵콜 가능하고 약해지는 모델에 영양을 주는 앵콜로, 1980년 처음 출시된 후 6세대 리뉴얼을 거쳐 탄생한 제품이다 더욱 신화가 된다. 내장된 파우더가 나을 때까지 무경을 완전히 돌려 파우더와 앵콜이 잘 섞이도록 흔들 후 마시지 팁을 끼워 앵콜 한 통을 모두 골고루 비르면 끝. 색이 나지 않도록 되도록 아톰에 사용해도 좋다. 5.5ml X 8 12만2천원, 문의 1899-4802. *by 에디터 장리은*

상투이 라쥘 스킨 플라스 아이 엔 페이스 스킨 #1 피온데이션의 정교함과 컨실러의 정교한 잡화에 선보인 아상져, 스킨 제형으로 스욱 바르면 자연스럽게 피부 톤을 보정해준다. 트러블 자국 등 필요한 부분만 커버해도 자연스럽게 건강한 피부 표현이 가능하다. 오일프리 제형이라 오후까지 화장이 들뜨지 않고 산뜻하게 유지되는 것도 장점. 4g 9만원, 문의 02-517-0902. *by 에디터 이주이*

골레드브 보네 레디안트 얼티 빈크 오일 그라 진해낸 제품 중 텍스처가 가장 가볍고 산뜻한 안티에이징 성분인 얼티 빈크 오일, 바르는 순간 피부에 즉각적으로 흡수되어 표면에 오일감이 남지 않고, 유·수분만 충분히 채워준다. 이번 시즌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오가드 프린트 보틀에 담아 출시한다. 75ml 18만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이혜미*

스쿠피 디아미닌 펜슬 #01 사용해보면 진짜는 립 펜슬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지만, 사용 후 피부속 푼수 아이템이 되었다. 입술 라인을 정교하게 연출하는 데 이만한 제품이 없는 듯하다. 라인을 그린 입술에 덧붙인 립스틱에도 잘 어울리고, 매트하게 마무리되어 오랜 시간 단단 끄뜨였다. 0.46g 4만2천원, 문의 02-6905-3369. *by 에디터 이주이*

사슬리 레 하트-오브로 #40 글로우 쥬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을 선호하는 에디터를 만족시킨 제품. 핑스 즐겨 바르면 피치 계열 아이섀도우를 바르고 마주지에 푼 코트도 사용했다. 크리미한 텍스처가 부드럽게 발려 부담스럽지 않고 은은하게 번쩍인다. 동백유와 녹차 추출물, 들장미 열매 성분을 더해 스킨케어 효과까지 발휘하는 매력적인 제품. 1.5g 5만2천원, 문의 080-549-0216. *by 에디터 이주이*

디올 미크로-플루이드 테인트 로즈-블루밍드 핸드 로즈 은은한 향이 곁에 가붙어 산뜻해지는 느낌. 내장된 가부키 브러시를 이용해 원을 그려듯 피온데이션을 바른 뒤 미끈거림을 매끄럽게 정리해준다. 극도로 섬세하고 부드러운 합성모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아 민감성 피부에도 적합하다. 30ml 14만원, 문의 02-3438-9631. *by 에디터 이주이*

전조 월드 파워 오드 파플 플로럴 노트를 사용하지 않고 톱카빈, 시솔트, 사이프라스 등의 조합으로 보다 새로운 의미의 여성성을 정묘한 향수. '미어' 심벌 형태의 보물, 항공 재킷의 바튼 장식에서 영감을 얻은 메탈 디테일, 클래식한 메인 컬러로 사용한 옐로우 톤 등 전조의 패션 세계를 반영한 그래픽적 디자인이 눈길을 끈다. 50ml 9만원, 문의 080-344-9500. *by 에디터 이혜미*

에스티 로더 라미라리아징 수프림+나이트 인텐시브 크림 2배 고농축 모양가 성분인 피부 본연의 힘을 길러주고 2배 더 강력한 히알루론산이 피부에 영양을 채워준다. 알콜 함유가 적, 데일리까지 바르고 찬지 3일째, 아침 세안 시 수분으로 확실히 촉촉하고 평안해진 피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50ml 15만2천원, 문의 02-6971-3212. *by 에디터 장리은*

조 말론 런던 라킵 바질 앤 민디안 핸드크림 에디터의 손은 물기가 한 번이라도 닿으면 꼭 핸드크림을 발라야 할 만큼 건조하다. 무엇보다 향이 좋아야 하고, 빠르게 스며들어야 하며, 너무 끈적이지 않고, 보습력도 좋아야 한다는. 에디터가 장한 네 가지 핸드크림 필수 항목에 모두 합격점을 주고 싶다. 50ml 4만6천원, 문의 02-3440-2750. *by 에디터 장리은*

에르메스 트윌리 데르메스 오 프외브레 핑크 페퍼, 텐드 로즈, 파롤리거 조화를 이룬 이쁜 산뜻하고 발랄한 향이 난다는 걸 처음 알았다. 폭 쓰는 느낌에 상쾌하지만 여름 어울리고, 가볍지도 않다. 마치 허블리 파랑과 공기기 맑은, 기분 좋게 쌀쌀한 가을날 숲에서 꽃을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한다. 85ml 18만9천원, 문의 02-310-5174. *by 에디터 장리은*



* 정리은(40대 건성), 이혜미(30대 민감성), 이주이(20대 지·복합성)

FASHION

브룩스 브라더스
콜롬비아 엘라 스피가
이자벨 마랑
미우미우

콜롬비아 엘라 스피가 삼성전자의 글로벌 프렌테이션 지난 9월 23일, 프랑스 리즈 호텔에서 콜롬비아 엘라 스피가와 삼성전자의 글로벌 프렌테이션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콜롬비아의 깊은 역사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시그니처 컬렉션, 삼성전자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더 울스 크린이 함께 전시됐다. 이번 파리 컬렉션에서 선보인 시그니처 라인 디오에 백은 그대 그라스스(화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으며, 가장 콜롬비아다운 제품이라 평가받는다. 문의 02-2230-1225

미우미우 미우 컨피덴셜 핸드백 한 여성과 그녀가 가장 소중한 여가는 액세서리의 친밀한 관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미우미우의 미우 컨피덴셜 핸드백은 보석함 또는 장식함을 떠올리게 한다. 마테리세 랙링 기법의 반듯한 사각 형태는 주얼리나 연어핀지 등 야가는 물건을 소중하게 보호하는 듯하고, 골드 톤의 잠금장치는 비밀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처럼 느껴진다. 문의 02-3218-5331

브루넬로 쿠차넬리 벨트 카디건 롱슬릭 웨딩 올 블렌드 크루세 스웨터는 브룩스 브라더스의 울타운인 뉴욕(New York) 레퍼드 포인트, 페일 아일랜드 케아블리트, 플레드 패턴 등 다양한 데테일을 믹스한 패처블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탈리아 메리노 울을 섞어 보온성이 뛰어나고, 가볍고 부드러운 착용감이 좋으며, 브랜딩 요소와 칼라를 잘 표현했다. 디제이온 컬러로 재킷이나 코트와 매치해 포인트 주기에 적합하다. 문의 02-2052-8822

브룩스 브라더스 패처블 울 블렌드 크루세 스웨터 올 블렌드 크루세 스웨터는 브룩스 브라더스의 울타운인 뉴욕(New York) 레퍼드 포인트, 페일 아일랜드 케아블리트, 플레드 패턴 등 다양한 데테일을 믹스한 패처블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탈리아 메리노 울을 섞어 보온성이 뛰어나고, 가볍고 부드러운 착용감이 좋으며, 브랜딩 요소와 칼라를 잘 표현했다. 디제이온 컬러로 재킷이나 코트와 매치해 포인트 주기에 적합하다. 문의 02-2052-8822

이자벨 마랑 오프리나 재킷, 라신 부츠 약가죽 오버사이즈 핏 오프리나 재킷은 술칼

미우미우

SHOWROOM

펜디 2019~20 F/W 맨즈 아이웨어 컬렉션
펜디에서 브랜드 앰배서더인 배우 겸 모델 로카를 주연으로 한 2019~20 F/W 맨즈 아이웨어 컬렉션 영상 'This is the Place' 디스이즈 더 플레이스'를 공개했다. 직접 운전대를 잡은 로카의 여정을 뒤따라가는 이 영상에서 차창 너머로 흘러가는 영국의 배경과 함께 펜디 맨의 자유롭고 독립적인 정신을 엿볼 수 있다. 2019~20 F/W 컬렉션 의상과 새 아이웨어 컬렉션인 퓨처리스틱 펜디, 펜디 글라스, FF 펜디와 함께 여유롭게 달리는 자연 속 드라이브 영상은 오는 10월 펜디 홈페이지에서 전편이 공개된다. 새로운 펜디 2019~20 F/W 맨즈 아이웨어 컬렉션 중 하나인 퓨처리스틱 펜디는 반투명 컬러로 이루어졌으며, 날카롭고 평평한 표면이 특징이다. 컬렉션 키워드인 퓨처리즘과 클래식함을 완벽하게 구현해낸 제품. 다양한 컬러와 렌즈로 만날 수 있는 펜디 글라스는 라운드 프레임으로 스마트하고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FF 펜디는 시그니처 로고인 FF 로고가 선글라스와 안경대에 은은하게 각인되어 있다.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를 사용했으며 미러 렌즈를 적용했다. 문의 070-4340-5084



리처드 밀 RM 62-01 투르비옹 진동 일람 ACJ 맞춤형 항공기를 제작하는 에어버스 코퍼레이션 제트(ACJ)와 합작해 RM 62-01 투르비옹 진동 일람 ACJ 모델을 선보인다. ACJ와 함께하는 두 번째 모델이며, ACJ 전용기를 타고 떠나는 프라이빗한 여정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여행용 시계다. 투르비옹 진동 일람 기능을 담은 하이 컴플리케이션 모델이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착용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시계이기도 하다. 문의 02-512-1311

롤렉스 첼리니 컬렉션 고전 주얼에서 영감을 받은 앰버스 코퍼레이션 시계의 우아함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탄생시킨 첼리니 컬렉션을 소개한다. 최상급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첼리니 컬렉션은 타임, 데이트, 듀얼 타임, 문페이트, 총 47가지 제품으로 구성된다. 첼리니 컬렉션 모델에는 자체 제작한 고정밀 메카니컬 오토펙터 와인딩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문의 02-567-8195



JEWEL&WATCH



CHANEL